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4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569천km ²	G D P	319억 달러
인구	39.80 백만명	1 인 당 G D P	800 달러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Kenya Shilling(Ksh)
대외정책	친서방개방정책	환 율(달 러 당)	77.35

-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569천 km²로 한반도의 약 2.6배에 달함. 인구는 39.8백만이며, 수도 나이로비(인구 135만), 몸바사(46만), 키수무(19만) 등이 주요 도시임.
- 1963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1979년부터 모이 대통령에 의한 장기 통치가 지속되다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키바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
- 농업 위주의 1차 산업구조로 커피, 차, 원예작물 등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으며, 해변, 사파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43개의 다양한 종족 구성으로 국민들간 뿌리 깊은 인종적 반목이 자리 잡고 있으며, 키쿠유족(21%), 루히야족(14%), 루오족(13%), 캄바족(11%), 카렌진족(11%) 등이 대표적인 종족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제성장률	5.9	6.3	7.1	1.7	2.0
재정수지/GDP	0.1	-2.1	-3.9	-3.9	-4.9
소비자물가상승률	10.3	14.5	9.8	26.2	16.9

자료: IMF, EIU

□ 2009년 경제성장 크게 둔화

- 케냐 경제는 간헐적 가뭄, 열악한 인프라 상황, 고질적 부정부패 등의 복합적 문제로 지속적 침체양상을 보여 왔으나, 2002년 현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의 집권 이후 관광, 통신 및 운송 산업의 발달로 2004~07년 연평균 6.5%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음식료품 및 국제상품 가격의 상승, 부정선거 시비로 촉발된 소요사태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와 FDI의 감소, 심화된 가뭄 등으로 케냐 경제는 2%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소비자물가, 두 자릿수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 상승 및 농작물의 가격 불안으로 2004년 이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지속해온 물가는 2007년 케냐 실링화(Kenya Shilling: Ksh)의 강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9.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소 하

락하였음.

- 열악한 기후 조건으로 물가지수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2%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대내외 수요 감소 및 국제상품시세의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16.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11월, 케냐통계청(KNBS)은 물가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되는 기존 조사방식 대신 물가측정 대상지역 및 항목을 확대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소비자물가 측정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신규 측정법을 기준으로 전망된 201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 수준임.

□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증가로 2009년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취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로 2007과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9%를 기록하였음.
- 2009년,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한 결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4.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의 지속으로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 경제구조 · 정책

□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

- 케냐는 농업부문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형태를 띠고 있음. 2000년 Kenya Tea Development Authority(KTDA)의 민영화 이후 농업부문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농법 등으로 여전히 산업 전반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양대 수출품목인 원예작물과 차가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 각각 18.8%, 15.5%로, 농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와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부문 취약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프라 미비, 숙련인력의 부족, 부정부패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로 제조업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취약한 경제 인프라

- 도로의 14%만이 포장되어 있으며, 철도 운행도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케냐의 경제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전기도 수도 및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등 불안정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도 미흡하여 절반 정도의 인구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산업 회복세

- 케냐는 해변과 사파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관광산업을 정부의 "Vision 2030"의 6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정부도 동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
- 케냐의 관광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열악한 인프라, 테러위협에의 노출 등으로 침체양상이 계속되었으나, 2004년 이후 경기호조세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 동국의 국제수지 및 고용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8년초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폭력사태로 2008년 케냐를 방문한 국외 관광객수는 전년 대비 30.4% 감소한 73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30.6% 상승한 95만 명을 기록하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미달러 대비 케냐 실링화의 가치하락으로 관광객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며 2008년 7.6억 달러를 기록한 관광산업 관련 외화수입은 2009년 전년 대비 6.6%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경제개혁 추진, 가시적 성과는 부진

- 키바키 대통령은 2002년 집권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강력한 사회경제개혁을 추진하였음. 2003년 11월 IMF의 빈곤감축 및 성

장프로그램(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을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고질적 부정부패 문제가 효율적 정책 이행을 가로막으며 가시적 성과는 부진한 편임.

- 한편, 케냐 정부는 2010~11년중 제반 규제의 완화,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와의 무역자유화, 민영화 등에 주력하는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키바키 정부,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 발표

- 정부는 2008년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관광산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서비스의 6대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 두 배 달성 및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 반열 등극 등의 목표를 골자로 함.
- 동 개발계획을 통해 도로신설 및 개보수, 교량신설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발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IMF, 2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ESF) 지원

- 2008년초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요사태, 식품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타격에 이어 2009년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09년 6월 케냐는 IMF로부터 2.1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ESF)을 지원받았음.

*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IMF가 지원하는 양허적 성격의 기금

-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산업정책, 환율정책 등에 대한 IMF의 정책적인 권고 및 구조적인 조정과 함께 외부충격기금(ESF)을 활용한 긴급 금융지원은 동국의 일시적인 재정갭을 메우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등 경제상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e
경 상 수 지	-252	-510	-1,034	-1,978	-1,579
경 상 수 지 / G D P	-1.3	-2.2	-3.7	-6.8	-5.0
상 품 수 지	-2,140	-3,253	-4,256	-5,649	-4,560
수 출	3,462	3,516	4,132	5,040	4,471
수 입	5,602	6,769	8,388	10,689	9,031
외 환 보 유 액	1,781	2,396	3,335	2,856	3,335
총 외 채 잔 액	6,434	6,381	7,355	7,545	8,639
총 외 채 잔 액 / GDP	33.6	28.0	26.6	25.9	27.1
D . S . R .	8.7	6.0	5.2	4.3	5.3

자료: IMF, EIU

□ 2009년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 동국은 2004년 이후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확대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원유 등의 수입증가로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대비 수입규모 감소폭의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9.2% 감소한 46억 달러(GDP 대비 14.3%), 경상수지 적자는 20.1% 감소한 16억 달러(GDP 대비 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기조 및 신종플루발생 감소세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다시 증가추세

-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며 실링화의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자,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케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2008년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 6월 IMF의 외부충격기금(Exogenous Shocks Facility: ESF) 지원, 하반기중 관광산업의 회복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하며 2009년 9월 현재 외환보유액은 33억 달러,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3.7개월 수준임.

□ 외채부담은 양호한 편

- 2007년 73.6억 달러에 이르던 케냐의 총 외채규모는 2008년 2.6% 증가한 7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약 86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2008년말 GDP 대비 총외채규모는 25.9%, D.S.R은 4.3%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8년 6월과 2009년 5월 수행된 외채부담능력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결과, IMF는 최근의 세계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케냐가 주변의 고채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외채부담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안정

□ 2007년 12월 키바키 대통령 재선 성공, 부정선거 시비 소용돌이

- 국가연합당(Party of National Unity: PNU)의 키바키 대통령은 2002년 케냐의 첫 자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2007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야당인 오렌지민주운동당(Orange Democratic Movement: ONU)의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며 재선에 성공하였음(득표율: 키바키 46%, 오딩가 44%).

*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는 오렌지민주운동당이 99석을 차지, 46석을 차지한 국가연합당을 앞지르며 큰 승리를 거두었음.

- 대선 여론조사와 개표결과에서 오딩가 후보가 키바키 후보를 앞서던 중 선관위의 갑작스런 개표 중단 이후 키바키 대통령의 승리가 발표됨에 따라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결과 불복을 선언함. 부정선거 시비로 촉발된 소요 사태는 곧 종족 간 분쟁 양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2월 28일 국제사회의 중재 하에 권력분점 협상에 합의하기까지 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유혈사태로 이어짐.

□ 헌법개정을 통해 연합정부 구성 및 총리직 신설에 합의

- 2008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연합당과 오렌지민주운동당의 연합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총리직도 신설되었음.
- 총리직은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오딩가가 수행하게 되었으며, 연합정부내 42개 장관직을 국가연합당과 오렌지민주운동당이 절반씩 분배하게 되었음. 그러나 총리직의 권한이 불명확하고,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 주요 요직을 국가연합당이 차지하는 등 향후 연합정부 운영의 갈등요소를 남기게 되었음.

□ 장관 경질 등 연합정부내 갈등양상 지속

- 2010년 2월, 키바키 대통령이 원조자금 유용 등 부정부패의 명목으로 국가곡물생산위원회(National Cereals and Produce Board) 및 총리실의 고위공무원 등을 정직시키자, 오딩가 총리가 즉각 농업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정직시키는 등 연합정부내 갈등양상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양측은 부정부패의 명목으로 정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유는 정치적인 분쟁으로 해석되고 있음.
- 이러한 정직사태와 관련, 키바키 대통령은 오딩가 총리의 장관들에 대한 정직 처분은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오딩가 총리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내각회의 불참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고 있는 등 향후 정국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됨.

□ 종족간 소요사태, 2007년 12월 대선결과를 기화로 표출

- 케냐는 최대 부족인 키쿠유족을 포함해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종족 구성으로 인해 독립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대선 부정선거 시비가 전국적인 유혈사태로 확대된 배경에는 종족 간 갈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 2008년초 초유의 유혈사태로 1,300여명이 사망하고 3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누적된 종족 간 갈등의 표출로서 독립 이후 40년 이상 정치·경제계를 지배해 온 키쿠유족에 대한 타 종족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됨.
- * 키바키 대통령은 케냐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키쿠유족 출신인 반면, 오딩가는 전체 13%를 차지하는 루오족 출신임. 키쿠유족은 정치권력의 상당부분을 독식하며 그간 경제적 이권을 누려온 데 반해 루오족을 비롯한 소수 종족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종족 간 뿌리 깊은 갈등이 심화되어왔음.

□ 대연정 등 양당간 권력분점 통해 종족간 갈등 진정

- 3개월간 지속된 2008년초의 유혈분쟁은 2008년 4월 UN 전사무총장 코피 아난 등의 중재로 헌법을 개정하고 대연정을 구성하며 일단락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큰 소요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등 종족간 갈등세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2.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회원국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모색

- 2008년초의 정치적인 혼란으로 역할이 많이 퇴색 되었지만,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회원국으로서 케냐는 지역적인 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를

주축으로 2000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7월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가입,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5년 1월 발효된 동아프리카 관세 동맹을 계기로 동아프리카공동체는 공동시장 형성(2010년), 화폐통합(2012년) 및 궁극적인 정치동맹체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중국 등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 케냐는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조국들과 관광, 농업, 문화, 교역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기 관	종 전 등 급	현 행 등 급
S&P	B+(2006. 9)	B(2008. 2)
Fitch	..	B+(2007.12)
OECD	6등급(2008. 10)	6등급(2009. 10)
I.C.R.G	112/140(2009. 3)	103/140(2010. 2)
Euromoney	132/186(2009. 9)	110/186(2010. 3)
I.I	124/177(2009. 3)	124/178(2009. 9)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영국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부담은 양호한 편

- 2004~06년 기일 도래 분 4.8억 달러의 채무 중 3.5억 달러에 대한 2004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 합의 및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 부담은 양호한 수준임.
- 외채상황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어서 동국은 HIPC 국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 문제를 고려해 과도한 양허성 차관 수혜는 꺼리는 분위기임.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차입 태도 견지

- 2009년 12월 성공적으로 발행된 정부의 인프라채권에 이어 2010년 2월 정부는 제3차 인프라채권을 발행하였음. 이자율 9.75%, 세금면제 등 인프라채권의 양호한 조건으로 145억 케냐 실링(1.9억 달러) 모집에 353억 케냐 실링(4.6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주문이 몰렸으며, 결국 최종금액을 163억 케냐 실링(2.2억 달러)로 증액하며 성공리에 발행을 마무리하였음. 발행금액의 55%는 도로, 24%는 수력, 21%는 전력 개선에 사용될 예정임.

□ OECD 회원국 ECA,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현황

- OECD 회원국 ECA의 대 케냐 지원현황(OECD, 2009년 12월말 기준)
 - * 단기: 총지원잔액 1.7억 달러(연체금액 없음)
 - * 중장기: 총지원잔액 8.3억 달러(연체금액: 1.6억 달러, 연체비중: 19.3%)
- 한편, IMF나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현황은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케냐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136,742	156,364	164,653	합성수지, 열연강판,
수 입	7,793	5,739	5,573	동피및스크랩, 커피류,

* 자료: 한국무역통계

□ 2009년 교역규모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09년 우리나라와 케냐의 교역규모는 1.7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對케냐 수출은 2009년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5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동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열연강판, 석유화학 제품, 시멘트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동피 및 스크랩, 커피류, 기타 인 쇄물 등임.

□ 해외직접투자 현황: 40건, 2,599천달러 (2009년말 현재 누적투자 기준)

V. 종합의견

- 케냐는 2004년 이후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관광업의 부진 및 2008년초 부정선거 시비에 따른 소요사태 등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2%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인프라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따른 기계류 및 원유 등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경상수지 적자기조도 지속되고 있음.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산업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채상환 부담도 다른 아프리카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 국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다소 감소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향후 변경된 물가 측정방식을 통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키바키 정부는 경제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척결 등의 주요 국정목표를 추진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임. 2008년초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종족간 유혈분쟁 이후 대연정을 구성, 현재까지 큰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회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연합정부내 갈등에 따른 장관 경질 등 정치적인 혼란은 지속되고 있음.

조사역 반형섭(☎02-3779-6652)
E-mail : hsbhan@koreaexim.go.kr